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과 社會關係網支援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Association of Middle-Aged Housewives' Crisis and Their Social Network Support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 申 婕 映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玉 先 花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Assistant: Ki Young Shin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Associate Prof.: Sun Wha Ok

— 目

次 —

I. 問題의 提起

II. 關聯 研究 考察

1. 中年期主婦에 관한 研究

2. 社會關係網支援에 관한 研究

3. 社會關係網支援과 中年期主
婦의 危機感

III. 研究問題 및 變數의 定義

1. 研究問題의 設定

2. 變數의 正義

IV. 調查方法 및 節次

1. 調査對象

2. 測定道具의 構成

3. 資料 蔊集方法 및 分析方法

V. 結果 및 解釋

1.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전반
적 경향

2. 社會關係網支援의 전반적 경
향

3. 社會人口學的 變數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4. 社會關係網支援에 따른 中年
期主婦의 危機感

VI. 結論 및 論議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social network support on the middle-aged housewives' crisis and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social network systems of modern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unemployed housewives living in the Seoul area, whose age was from 40 to 59 and whose last child was older than 11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by structured questionnaire with the subjects(N=40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oneway ANOVA, Scheffé-test,

t-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Middle-aged housewives, who were the first half of 40's, university graduated, and believed in a religion, had lower crisis.

2) The association of social network support and middle-aged housewives' crisis, which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were as follows :

(1) The more middle-aged housewives received total, emotional, instrumental support from husbands' families of origin, the lower their crisis was. (2) The more middle-aged housewives received total, emotional, informational, support from their families of origin, the lower their crisis was. (3) The more middle-aged housewives received total, emotional, instrumental support from their friends, the lower their crisis was. (4) The more middle-aged housewives received total, emotional, instrumental, social companionship support from their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 the lower their crisis was.

I. 問題의 提起

中年期는 개인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공헌을 이루어 나가면서 인생의 완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취의 이면에 있는 자아를 통찰하면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危機意識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세대간 관계에서 볼 때 중년세대는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양세대 모두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감을 경험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서(Brody, 1981 ; Neugarten, 1975) 中年期의 危機는 가중될 수 있다.

中年期의 個人중에서도 특히 中年期主婦는 지나온 생애를 통찰하면서 자아정체감을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허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폐경과 생년기 노화로 인한 신체적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가족관계에서는 직업세계로의 몰두 성향이 가장 강한 中年期의 남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자녀의 성장과 독립에 따른 공허감을 경험하게 된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中年期까지 수행해온 주부역할에서 별다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여 심한 中年期의 危機를 겪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로 인하여 中年期 여성의 남성보다 두배나 더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Giele, 1982) 이는 신체적 질병보다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인

증후로 나타난다(홍완호, 1978).

이와같이 中年期主婦가 危機感을 겪고 낮은 정신건강수준을 보임으로써 개인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主婦가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고 가족구성원 각자가 맡고 있는 정서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의 가족관계에서는 主婦가 겪는 危機感이 主婦와 상호작용하는 가족구성원에게 불만과 갈등을 유발시켜 건전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主婦 스스로 극복하여 主婦 개인의 생활의 질은 물론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켜 줄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때 지원체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主婦의 社會關係網이라 할 수 있다. 主婦는 자신의 심리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또한 가족이 갖는 개방적인 특성(Gross, Crandal & Knoll, 1980)으로 인하여 主婦 개인적으로나 가족차원에서 친척, 친구, 이웃의 1차적 집단으로 구성된(Ell, 1984) 社會關係網에 관여하고 있다. 主婦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社會關係網의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으로나 도구적으로 社會的 支援을 받을 수 있다. 社會的 支援은 애정, 인정, 원조를 포함하는 대인간의 상호거래(Kahn & Antonucci, 1980)인데

이는 개인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정신적 건강 수준과 복지수준을 증진시켜 주는 요소이다(Cobb, 1976; House, 1981). 그러므로 中年期主婦가 친척, 친구, 이웃과 자발적 단체 구성원과 같은 社會關係網으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 등은 中年期主婦의 복지수준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겪는 危機感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中年期主婦가 社會關係網支援의 영향으로 危機感을 극복해갈 수 있다면 이는 主婦 자신의 생활의 질뿐 아니라 主婦가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생활의 질까지 향상시켜줄 수 있으므로, 가족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社會關係網支援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간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작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두 영역을 연결시켜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는 극소수(김명자, 1986, 1989)이고, 이 연구들도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中年期主婦의 발달 단계상의 특징, 사회심리적 특성을 강조하여 살펴보았을 뿐 主婦의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관계측면과 관련지어서 보지는 않았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들(House & Kahn, 1985; Kaplan, Robert, Camacho & Coyne, 1987)은 主婦의 우울증, 정신질환과 같은 신경증적인 증세를 중심으로 社會關係支援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로서 일반적인 主婦들의 危機感의 수준을 파악한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관계측면에서 파악해보고,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이 危機感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主婦를 중심으로 가족과 社會關係網의 관련성을 파악해봄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체계로서의 社會關係支援의 중요성과 의미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關聯研究 考察

1. 中年期主婦에 관한 研究

1) 中年期의 정의

中年期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나 명칭이 일치되고 있지는 않지만 中年期의 시기 설정에 있어서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주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생활연령을 기준으로 中年期를 구분한 경우 Sheehy(1976)와 Gould(1978)는 35세에서 45세를, Brim(1976)은 40세에서 50세를, 김명자(1989)는 40세에서 59세를 각각 中年期로 설정하였다.

가족생활주기를 지표로 사용했을 때는 연령 자체보다는 가족관계의 변화과정과 생활사건 개념 등이 고려된다. 대부분의 학자들(Borland, 1978; Harkins, 1978; Targ, 1979)이 막내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대학진로, 결혼 등으로 출가한 이후의 시기와 관련시켜 中年期를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특성상 이러한 서구가족의 가족생활주기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데(유영주, 1984) 그 이유는 첫째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이 곧 독립과 연결되지 않고, 둘째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맷는 정서적, 물질적 유대가 강하기(이경희, 1988; 이효재, 1971)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독립의 개념을 완전한 독립 즉 출가의 의미로 보기보다 같은 가족내에 있으면서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자 시도하는 시기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과 우리 가족에 적합한 가족생활주기개념을 동시에 고려하여 생활연령면에서는 선행연구(김명자, 1989)에서 中年期로 구분한 40세에서 59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中年期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생활주기면에서는 막내자녀가 만 10세 이상인 시기를

中年期로 정의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에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서봉연, 유안진, 1984) 독립적인 성향이 증가되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자 시도하는 시기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中年期主婦의 특성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인생주기에 있어 中年期는 새로운 자아의 출현과 발달, 내적 통합, 변동에 대한 관용 등을 발달시켜 나가야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中年期個人은 자아정체감의 危機, 사회심리적 갈등, 발달에 따른 긴장감을 경험하게 된다(Peplau, 1975; Rosenberg & Farrell, 1976). 이러한 中年期의 危機나 갈등은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성이나 가치관, 행동변화를 초래하는 혼돈감(Ciernia, 1985) 또는 고립감, 절망감, 긴장감 등이 신체적 증세로 나타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Farrell & Rosenberg, 1981) 개념으로 정의된다.

中年期 危機感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경험하는 것이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개인의 심리적인 발달측면외에도 신체적인 특성, 가족관계와 주부역할의 특성 때문에 中年期의 危機를 남성보다 더 심하게 겪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中年期主婦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年期主婦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따른 자기확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Erdwins, Mellinger & Tyer, 1981) 한편으로는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성(Gove & Tudor, 1973), 자녀의 독립이후 겪는 허탈감, 무력감(Targ, 1979) 등으로 인해 中年期主婦의 자아개념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中年期主婦는 출산능력의 상실과 노년기의 시작을 의미하는(Notman, 1979) 폐경을 경험함으로써 신체적인 노쇠를 겪게 되고 여성다움의 상실로 인하여 불안감과 우울증을 느끼게 된다(Lennon, 1980).

세째 비구조적이고 비가시적인 주부역할과 비전문적이고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성격(Benard, 1982)으로 인해 많은 기혼여성들이 스트레스와 危機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주부역할 이외에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채 中年期에 도달한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에 비해 더 불안해 하며 자신을 더욱 무가치하게 여긴다(한혜경, 1985)고 한다.

끝으로 中年期主婦는 직업적 성취에 몰두하면서 스트레스와 危機感을 겪는 中年期의 남편과,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는(이효재, 1987) 자녀 사이에서 소외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中年期主婦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主婦가 자신과 가족관계에서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상실감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개인적인 특성인 정서적·신체적 특성과 가족과 관련된 주부역할, 가족관계 특성에 근거하여 정서적·신체적·주부역할·가족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危機感의 정서적 측면은 발달단계상 中年期에 도달한 主婦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에 대해 갖는 허탈감, 좌절감이고 신체적 측면은 폐경이나 노쇠현상, 외모의 변화로 인하여 主婦가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뜻한다. 또한 주부역할 측면은 전업주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主婦가 느끼는 무력감과 무가치감을 뜻하며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中年期主婦가 남편과 자녀로부터 느끼는 소외감, 상심감을 危機感으로 보고자 한다.

2. 社會關係網支援에 관한 研究

社會關係網支援이란 社會關係網과 社會的 支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로서 그 개념을 社會關係網 개념과 社會的 支援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社會關係網이란 “중심이 되는 인물 혹은 부부를 알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체(Milardo, 1988)”이며 이 범주에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적 성원과 직장동료, 공식적 집단의 성원 등이 포함된다(Bott, 1971; Ell, 1984; Milardo, 1988).

한편 社會關係網에서 교류되는 社會的 支援은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보살핌 받고 사랑받고 평가받고 상호의무의 관계망 성원이라는 믿음을 갖게하는 정보(Cobb, 1976)”이며 개인간의 정서적 관심, 도구적 원조, 정보 혹은 평가의 흐름을 포함하는(House, 1981)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社會的 支援은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주므로(Gotlieb, 1981; Hammer, 1981) 社會關係網支援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社會關係網支援을 유형별로 볼 때, 자신을 위로해 주고 의논상대가 되어주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없을 때 中年期主婦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므로(한혜경, 1985) 社會關係網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지출이 심한 中年期(Oppenheimer, 1974)에 主婦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원조와 서비스 지원 역시 危機感을 낮출 수 있으며, 主婦의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제공되는 정보적 지원 역시 主婦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양육 역할의 감소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은 中年期主婦가 社會關係網 구성원과 여가활동이나 사교활동을 함께함으로써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사교적 지원 또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社會關係網支援을 社會關係網이 中年期主婦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원조, 정보와 사교적 활동의 흐름이라고 정의하고 하위영역별로 정서적·도구적·정보적·사교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中年期主婦의 危期感과 갖는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社會關係網支援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1) 친척의 지원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현대가족의 친척관계가 그 범위나 접촉 인원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했으나 부계혈연 의식에 입각한 친족주의가 강한(이효재, 1987) 우리 가족의 성격상 친족역할의 주수행자인 中年期主婦는 친

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친척관계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中年期主婦의 입장에서 보면 친척관계는 主婦가 자녀를 출가시키기 전까지는 시가 및 친가와의 관계로 대별되고 자녀를 출가시킨 후에는 자녀까지 中年期主婦의 친척관계망에 포함된다.

시가친척과 친정친척의 지원을 中年期主婦의 정신건강, 사기와 관련시켜 볼 때 친정친척인 형제자매는 主婦와 연령이 비슷해서 서로 서로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Cicirelli ; 1982) 이러한 지원은 인생후반기에 여성의 사기와 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준다(Arling ; 1976, McGhee ; 1985)고 한다. 한편 자녀가 출가한 후에도 主婦와의 긴밀한 유대가 지속되는(이경희, 1988; 이원주, 1988) 것으로 볼 때 출가시킨 자녀가 제공하는 지원 역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특정한 사회관계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적인 기능(Status Support ; Wills, 1983)을 담당하므로 社會關係網의 범주에 출가시킨 자녀가 존재하는 主婦와 존재하지 않는 主婦의 危機感에는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가친척, 친정친척, 출가시킨 자녀의 社會關係網支援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과 갖는 관련성을 구명해 보고 이와 함께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유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친구의 지원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친구는 主婦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발성이 있고, 공통의 관심과 호혜성, 동등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中年期主婦의 주요 社會關係網으로 보고 있다(Arling, 1976). 친구 관계에서는 물질적인 지원보다 정서적·정보적 지원의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이경희, 1988) 이러한 지원이 主婦의 고독감과 불안감을 감소시켜 준다(Arling, 1976)고 하므로 친구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社會關係網支援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3) 이웃의 지원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이웃관계는 정서적·물질적 지원의 상호교류보다는 지역적 근접성 때문에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Litwak & Szele-nyi, 1969) 성별로 볼 때 여성일수록 이웃관계가 높아지며(강대기, 홍동식, 1982) 가족생활주기별로 볼 때 자녀가 성장한 中年期에 도달할수록 主婦가 접촉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한다(이경희, 1988)고 한다. 이로써 볼 때 이웃이 제공하는 社會關係網支援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과 관련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4) 자발적 단체 성원의 지원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종교단체나 사회봉사단체와 같은 자발적 단체(Voluntary Association)는 中年期主婦가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을 함으로써 主婦 스스로 자존심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지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가정밖에서의 역할활동을 통해 中年期主婦는 주부역할에서 느끼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Menaghan, 1982) 사회봉사단체나 시민단체, 교회활동의 참여율이 높을수록 主婦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장상희, 1988, Hayes & Stinnett, 1971). 따라서 자발적 단체활동을 통해 알게되고 상호작용을 하게된 활동단체의 성원은 中年期主婦의 지원의 근원이 되어 각종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단체 성원이 존재 자체가 中年期主婦에게 지원이 되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Status Support : Wills, 1983)를 의미하므로 자발적 단체 성원이 존재하는 主婦의 危機感이 그렇지 않은 主婦의 危機感보다 낮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단체 성원이 제공하는 社會關係網支援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과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 자발적 단체 성원의 존재유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研究問題 및 變數의 定義

1. 研究問題의 設定

본 연구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社會關係網支援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은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3]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社會人口學的 變數(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社會關係網支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1]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시가친척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2]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친정친척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3]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출가시킨 자녀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4]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친구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5]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이웃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6]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자발적 단체 성원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變數의 定義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변수들의 개념을 조작적

으로 정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中年期主婦

본 연구에서는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40세에서 59세인 主婦이며 만 10 세 이상의 막내자녀를 둔 主婦를 中年期主婦라고 정의한다.

2)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中年期主婦가 자신과 가족관계에서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상실감을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危機感은 中年期主婦의 제반특성에 근거하여 정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주부역할 측면, 가족관계 측면에서 主婦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구성된다.

3) 社會關係網支援

社會關係網支援은 社會關係網이 中年期主婦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원조, 정보와 사교적 활동의 흐름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社會關係網이란 主婦와 상호 작용하는 가족 외부세계의 개인들로서 시가친척, 친정친척, 출가시킨 자녀,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으로 구성된다.

社會關係網支援을 관련 연구들(House, 1981; Lopata, 1978; Wills, 1983)을 기초로 하여 하위 영역별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원은 主婦가 社會關係網으로부터 제공받는 애정·인정·신뢰이고, 도구적 지원은 물질·금전·서비스의 원조이며 정보적 지원은 主婦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안내를 뜻한다. 사교적 지원은 主婦와 社會關係網이 공유하는 여가 휴가 사교활동을 의미하며 정서적·도구적·정보적·사교적 지원을 종합한 개념이 社會關係網의 총지원이다.

IV.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查對象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핵가족의 비취업주부로, 막내자녀가 만 10

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을 핵가족의 主婦로 한정한 것은 가족형태에 따라 社會關係網支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中年期主婦의 취업이 危機感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취업주부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主婦의 연령을 보면 40세에서 44세인 40대 초반이 29.7%, 45세에서 49세인 40대 후반이 28%, 50세에서 54세인 50대 초반이 28.8%, 55세에서 59세인 50대 후반이 13.6%였다. 主婦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28.3%, 고졸이 40.7%, 중졸이 10.7%, 국졸이 하가 10.7%로 고졸의 비율이 가장 많으며, 79만원 이하가 18.3%, 15만원 이상이 27%였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관리직이 45%였고,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이 27%이며 생산·판매서비스직이 23%였다.

2. 測定道具의 構成

1)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尺度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척도는 김명자(1989)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 Farrell & Rosenberg(1981)의 중년기 위기감 척도(Middle Life Crisis Scale), Hayes와 Stinnett(1971)의 중년기생활만족도 척도(Middle Years Life Satisfaction scale) 그리고 Linn과 Linn(1984)의 생애기능에 대한 자기평가 척도(Self Evaluation of Life Function Scale) 중 우울증 척도를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다.

이들 척도에서 정서적·신체적·주부역할·가족관계 危機感 영역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출하여 총 28개 문항을 작성한 뒤 예비조사와 요인분석 절차를 거쳐 각 하위영역별로 6개문항, 총 2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척도는 5점 척도이고 총점수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危機感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가족학 전공자로부터 검증을 받았고,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86으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2) 社會關係網支援 尺度

社會關係網支援 척도는 관련된 선행연구들(고선주, 1980; 아경희, 1988; House, 1981; Lopata, 1978; Wellman, 1981; Wills, 1983)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社會關係網은 시가친척, 친정친척, 출가시킨 자녀,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으로 나뉘는데 각 범주에서 主婦와 가장 친밀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한 사람을 응답자로 하여금 한 명씩 기입하게 한 후 그 사람을 기준으로 社會關係網支援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社會關係網支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社會關係網 범주에 따른 하위영역별 지원 척도는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원 각각 4개 문항이고 이를 종합한 社會關係網 각각의 범주별 총지원 척도는 모두 16개 문항이다. 본 척도의 내용타당도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가족학 전공자로부터 검증받았으며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는 6가지 범주별 지원 척도 모두 .80을 상회하므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인다.

3. 資料 落集方法 및 資料의 分析方法

1990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中年期主婦 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1990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고루 포함되고 주妇의 자발적 단체 참여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의표집을 하였다. 강남지역의 중학교 1개교와 강북지역의 고등학교 2개교, 강동지역의 고등학교 1개교와 대학교 3개교에 배포하고 종교단체와 사회봉사, 취미교양단체 등 5개 단체의 主婦들에게 배포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451부로 회수율이 75%이며 이 중 부실기재와 본 연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지는 제외시켜 총 404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Scheffé 검증, t 검증등이 사용되었

으며 통계처리는 서울대학교 전자계산소의 SPSSX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V. 結果 및 解釋

1.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전반적 경향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전반적인 경향을 총체적인 수준과 하위영역별 수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총체적인 危機感의 평균은 67점(점수범위 : 24 점~120점)이었고 응답자의 危機感의 점수는 29 점에서 102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하위영역별 危機感의 수준을 보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척도의 중간값인 18점을 중심으로 볼 때 정서적 危機感(평균 17.4), 신체적 危機感(평균 18.05), 주부역할 危機感(평균 16.97)은 중간수준 정도이며 가족관계 危機感(평균 14.05)은 중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필연적이라는 선행연구들(Gould, 1978; Levinson, 1978)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中年期의 危機가 개인의 특성이나 생활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中年期 危機感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Brim, 1976; Neugarten, 1975)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中年期主婦들이 스스로 危機感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¹⁾의 경우 자녀의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中年期의 危機感을 느끼고 자아를 성찰해 볼 여유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中年期主婦는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거나 독립한 이후에 생애발달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危機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2. 社會關係網支援의 전반적 경향

社會關係網의 범주는 시가친척, 친정친척, 출가시킨 자녀,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 등 총 6가지인데 이 범주 중에서 출가시킨 자녀와 자발적

표 1. 社會關係網支援(총지원)의 유형별 전반적 경향

| 지원의 영역 | | 시가 친척 | 친정 친척 | 출가시킨자녀 | 친구 | 이웃 | 자발적성원 |
|--------|------|----------|----------|--------|-------|-------|-------|
| 유형1 | 평균 | 50.60 | 60.06 | 67.17 | 61.17 | 52.44 | 52.87 |
| | 표준편차 | 13.05 | 10.73 | 8.82 | 11.47 | 15.03 | 15.03 |
| 유형2 | 평균 | 49.97 | 57.28 | 66.51 | 53.97 | 48.36 | — |
| | 표준편차 | 11.31 | 11.78 | 10.55 | 13.29 | 14.65 | — |
| 유형3 | 평균 | 51.50 | 62.98 | — | 63.12 | 57.54 | 54.66 |
| | 표준편차 | 12.77 | 10.85 | — | 10.86 | 12.18 | 12.27 |
| 유형4 | 평균 | 48.96 | 59.86 | — | 56.93 | 56.87 | — |
| | 표준편차 | 12.31 | 13.90 | — | 13.74 | 12.55 | — |

단체 성원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社會關係網 범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社會關係網支援의 수준을 4²⁾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유형의 사회관계망 총지원의 평균점수가 척도상의 중간값인 32 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社會關係網 범주별로 볼 때 출가시킨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어느 경우에서나 시가친척의 지원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는 출가시킨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와 主婦가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하고(이경희, 1988; Belsky & Rovine, 1984), 시가친척과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가 강하며 지원의 상호작용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들(김경원, 1989; 유가효, 198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3. 社會人口學의 變數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社會人口學의 變數인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註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년기주부의 비율이 전체의 64.6%를 차지한다.

註 2) 4가지 유형 중 유형1은 사회관계망에 6가지 범주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이고 유형2는 출가시킨 자녀가 존재하고 자발적 단체 성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유형3은 출가시킨 자녀가 존재하지 않고 자발적 단체 성원이 존재하는 경우이고 유형4는 이 2가지 범주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종교유무, 종교의 종류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수준을 이원분산분석으로 살펴보고 추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人口學의 變數 중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主婦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였고, 가계소득, 종교의 종류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초반집단과 50대 초반집단간에 危機感의 유의한 차이³⁾가 있었는데 이는 40대 초반의 主婦가 신체적으로 다른 연령대의 주부에 비해 건강한 편이고 가족생활주기⁴⁾가 주로 중·고등학생 자녀기이므로 자녀교육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주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0대 초반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시기이므로 주부의 가정내 역할의 변화가 오게 되어 심리적인 혼란감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이 시기의 危機感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전문대졸 집단과 대

註 3) 연령에 따른 중년기주부의 위기감의 집단간의 차이가 Scheffé 검증으로 밝혀지지 않아 이를 Duncan 검증으로 보충하여 살펴보았다.

註 4)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40대 초반의 주부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주부의 비율은 89.2%였고, 50대 초반 주부중에서 대학생 이상의 자녀를 가진 주부의 비율은 83.6%였다.

표 2. 社會人口學의 變數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 변수 | 집단 | 평균 | 빈도 | F | Scheffé |
|------|-----------|-------|-----|----------|---------|
| 연령 | 40대 초반 | 64.42 | 120 | | |
| | 40대 후반 | 67.70 | 113 | 2.64* | |
| | 50대 초반 | 68.94 | 116 | | |
| | 50대 후반 | 67.11 | 55 | | |
| 교육수준 | 중졸이하 | 67.84 | 116 | | ab |
| | 고졸·전문대졸 | 68.32 | 169 | 4.10* | a |
| | 대학이상 | 64.15 | 118 | | b |
| 가계소득 | 59만원이하 | 68.53 | 36 | | |
| | 60~100만원 | 68.27 | 165 | 1.55 | |
| | 101~200만원 | 65.24 | 165 | | |
| | 201만원이상 | 65.52 | 34 | | |
| 종교유무 | 종교 유 | 64.85 | 279 | -5.18*** | |
| | 종교 무 | 71.80 | 125 | | |
| 종교종류 | 기독교 | 63.94 | 105 | | |
| | 천주교 | 64.41 | 91 | 1.11 | |
| | 불교 | 66.49 | 83 | | |

* P<.05, *** P<.001(종교유무는 t값임)

졸이상 집단 간에 危機感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위기에 대처하는데 유용한 대안을 인식하기 쉬우며 충고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많지만(Myers, 1975) 교육수준이 중간 정도이거나 낮은 경우에는 危機感을 느끼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수집의 기회가 부족하거나 문제 인식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고졸 전문대졸과 중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主婦의 危機感이 대졸이상의 主婦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종교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으며, 이 결과는 종교를 가진 主婦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主婦보다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한다는 선행연구들(장병옥, 이정우, 1986; Vega et al., 1988)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한편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로써 볼 때 인간실존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고(Madelene, 1981) 안정과 위안을 부여해 주는 종교자체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종교는 종류와는 관계없이 中年期主婦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4. 社會關係網支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1) 시가친척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社會關係網의 6가지 범주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 정도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社會關係網 각 범주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의 점수에 따라 3개의 하위집단⁵⁾으로 나눈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추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친척의 총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총지원이 많을수록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게 나타났다. 추후검증 결과 총지원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지원수준을

註 5) 지원수준별 하위집단은 사회관계망 각 범주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 점수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M \pm 1/2S.D.$)를 고려하여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볼 때 시가친척의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볼 때 시가친척으로부터 中年期主婦가 위안과 인정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며, 시가친척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主婦의 가사노동 부담도가 낮아지고 긴급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主婦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危機感 또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정보적 지원과 사교적 지원에 따라서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시가친척이 공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만나는 빈도가 높고 일상적이거나 사교적으로 만나는 빈도가 낮아서(김경원, 1989; 이동원, 1984) 생긴 결과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社會關係網支援의 수준에서는 시가친척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시가친척의 지원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 주요 社會關係網支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가와 主婦의 지원의 교환 양상만을 파악한 채 시가와 主婦의 정서적·도구적 유대가 약화되었다고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김경원, 1989; 이경희, 1988; 이동원, 1984)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시가친척의 지원이 양적으로는 여타 社會關係網 범주에 비해 적었지만 부계혈연 중심의 친족의식이 잔존해 있는 우리의 친족관계에서 시가친척이 제공하는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친정친척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정친척의 총지원이 많을 수록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추후검증 결과 총지원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危機感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친정친척의 총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른 危機感의 차이를 보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볼 때 시가친척의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친정친척으로부터 받는 인정, 존중, 위안이 中年期主婦의 사기진작과 危機感 해소에 도움이

표 3. 시가친척, 친정친척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 지원의 영역 | 지원수준별집단 | 시 가 친 칙 | | | 친 정 친 칙 | | |
|--------|---------|---------|----------|---------|---------|---------|---------|
| |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 총 지원 | 상 | 61.82 | | a | 64.45 | | a |
| | 중 | 68.09 | 10.91*** | b | 67.05 | 5.43** | ab |
| | 하 | 69.16 | | b | 69.72 | | b |
| 정서적 지원 | 상 | 63.40 | | a | 64.13 | | a |
| | 중 | 68.75 | 10.77** | b | 67.39 | 8.80*** | ab |
| | 하 | 69.78 | | ab | 70.76 | | b |
| 도구적 지원 | 상 | 63.50 | | a | 65.82 | | |
| | 중 | 69.14 | 10.20** | b | 67.00 | 2.06 | |
| | 하 | 69.37 | | b | 69.03 | | |
| 정보적 지원 | 상 | 64.88 | | | 64.57 | | a |
| | 중 | 67.77 | 2.38 | | 68.07 | 4.30* | ab |
| | 하 | 68.07 | | | 68.79 | | b |
| 사교적 지원 | 상 | 64.93 | | | 66.19 | | |
| | 중 | 67.81 | 2.84 | | 67.02 | .68 | |
| | 하 | 68.36 | | | 68.07 | | |

* P<.05, ** P<.01, *** P<.001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이고 사교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친정친척으로부터 危機感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들음으로써 中年期主婦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친정친척의 정보적 지원의 영향이 의미있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친정친척의 도구적 지원과 사교적 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상 후기로 갈수록 친정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이 감소되고 사교적 관계도 적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이경희, 1988)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가족생활주기상 후반기에 해당하는 中年期에는 친정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원조의 기회가 줄어들어 도구적 사교적 지원이 危機感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친정친척들과 갖는 정서적이고 비공식적인 유대속에서 中年期主婦는 지원을 받고 자신의 危機感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볼 때 시가친척과 함께 친정친척의 지원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낮추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친족집단이 中年期主婦와 가족생활에 기능적임을 알 수 있다.

3) 출가시킨 자녀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社會關係網의 범주들 중에서 출가시킨 자녀는 中年期主婦에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주이다. 따라서 출가시킨 자녀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자체가 지원적인 기능(Status Support : Wills, 1983)을 살펴보기 위해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유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 자체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켜 주는데 있어 지원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가 中年期主婦에게 자녀의 가족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하고, 자녀를 출가시킴으로써 主婦가 심리적인 허탈감과 역할상실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社會關係網支援에 따른 中年

표 4. 출가시킨 자녀와 친구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 지원의 영역 | 지원수준별집단 | 출가시킨 자녀 | | | 친구 | | |
|--------|---------|---------|------|---------|-------|---------|---------|
| |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 총 지원 | 상 | 68.32 | | | 65.42 | | a |
| | 중 | 72.26 | 1.59 | | 66.03 | 6.23** | a |
| | 하 | 66.30 | | | 70.86 | | b |
| 정서적 지원 | 상 | 67.95 | | | 65.24 | | a |
| | 중 | 70.98 | .39 | | 66.67 | 5.14** | ab |
| | 하 | 69.00 | | | 70.18 | | b |
| 도구적 지원 | 상 | 69.13 | | | 65.11 | | a |
| | 중 | 71.14 | .80 | | 65.79 | 8.18*** | a |
| | 하 | 66.57 | | | 71.15 | | b |
| 정보적 지원 | 상 | 69.00 | | | 67.00 | | |
| | 중 | 71.97 | 1.07 | | 65.99 | 1.23 | |
| | 하 | 66.93 | | | 68.38 | | |
| 사교적 지원 | 상 | 68.23 | | | 65.45 | | |
| | 중 | 70.54 | .28 | | 67.02 | 2.56 | |
| | 하 | 68.75 | | | 68.95 | | |

** P<.01, *** P<.001

표 5. 출가시킨 자녀의 존재유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 집 단 | 평 균 | 빈 도 | t |
|-------------|-------|-----|------|
| 출가시킨 자녀존재 유 | 69.32 | 88 | .056 |
| 출가시킨 자녀존재 무 | 66.35 | 316 | |

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출가시킨 자녀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의 어느 부분에서도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출가시킨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社會關係網支援이 양적으로는 여타 社會關係網支援보다 많지만 내용면에서 볼 때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고독감과 사기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Lee & Ishiinkunz, 1980 ; Arling, 1976), 성인자녀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세대로서 부모가 압박감을 느낀다는 견해(Brody, 1981)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가정형성단계에 있는 출가시킨 자녀에게主婦가 많은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中年期主婦는 출가시킨 자녀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과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므로 출가시킨 자녀의 지원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해소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中年期主婦의 아랫세대인 출가시킨 자녀는 심리적 신체적 발달 단계상 中年期主婦와 상이한 특성을 가지므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社會關係網支援이 양적으로는 많지만 지원의 내용상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 친구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표 4에 제시된 바를 보면 친구의 총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검증결과 친구의 총지원의 수준이 낮은 집단이 중간집단, 높은 집단보다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더 높았다. 하위영

역별로 볼 때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났다.

이로써 볼 때 친구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켜주는 社會關係網의 범주이고 특히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中年期主婦와 동년배집단인 친구가 中年期 危機感을 主婦와 함께 경험하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中年期主婦에게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여타 社會關係網의 지원보다 친구가 제공하는 위안과 인정,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도움, 서어비스 제공과 같은 도구적 지원이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가 개인의 고독과 불안을 감소시켜준다는 선행연구들(Arling, 1976 : Lee & Ishiinkunz, 1980)과 일치하고, 여성의 우정이 풍요롭고 연대감이 높다는 견해(Booth, 1972)를 지지해준다.

5) 이웃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이웃의 총지원의 정도(표 6)에 따라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웃의 하위영역별 지원과 危機感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웃의 사교적 지원에 의해서만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추후검증 결과 이웃의 사교적 지원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危機感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의 제기능 중 사교적 기능이 가장 크다는 최재석(198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中年期主婦는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이웃과 사교활동을 함께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표 6.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 지원의 영역 | 지원수준별집단 | 이 웃 | | | 자발적 단체성원 | | |
|--------|---------|--------|-------|---------|----------|--------|---------|
| | | 평균 | F값 | Scheffé | 평균 | F값 | Scheffé |
| 총 지원 | 상 | 65.72 | | | 61.56 | | a |
| | 중 | 67.21 | 1.26 | | 65.66 | 4.83** | ab |
| | 하 | 68.18 | | | 67.25 | | b |
| 정서적 지원 | 상 | 66.03 | | | 63.03 | | a |
| | 중 | 66.60 | 1.24 | | 63.51 | 4.57* | a |
| | 하 | 68.40 | | | 68.31 | | b |
| 도구적 지원 | 상 | 65.60 | | | 62.37 | | a |
| | 중 | 67.27 | 1.90 | | 65.18 | 3.42* | ab |
| | 하 | 68.10 | | | 67.24 | | b |
| 정보적 지원 | 상 | 66.27 | | | 63.45 | | |
| | 중 | 68.47 | 1.09 | | 64.62 | 1.58 | |
| | 하 | 66.54 | | | 66.85 | | |
| 사교적 지원 | 상 | 64.00 | | a | 62.13 | | a |
| | 중 | 66.84 | 4.37* | ab | 65.77 | 3.81* | ab |
| | 하 | 69.27 | | b | 67.10 | | b |

* P<.05, ** P<.01

자신의 危機感의 수준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교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정서적·도
구적·정보적 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볼 때, 전반적
으로 이웃의 社會關係網支援은 中年期主婦의 危
機感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이로써
개별성과 의명성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웃의
지원적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리라고 예측된
다.

6) 자발적 단체 성원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 婦의 危機感

출가시킨 자녀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단체 성원
도 中年期主婦에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社會關係網의 범주이므로 자발적
단체 성원의 존재 유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

機感을 t 검증으로 알아보았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발적 단체 성원의
존재유무에 따라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통계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발적 단체
성원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았는데 이로써 볼 때
中年期主婦에게 자발적 단체 성원의 존재는 危機
감을 감소시켜 주는 지원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존재가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인가를 구명하기 위해 자발적 단체 성원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6에서 알 수 있
듯이 자발적 단체 성원의 총지원에 따른 中年期
主婦의 危機感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추후검증 결과 총지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의미있게 낮은

표 7. 자발적 단체 성원의 존재 유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 집 단 | 평 균 | 빈 도 | t |
|---------------|-------|-----|----------|
| 자발적 단체 성원 존재유 | 64.90 | 251 | -4.23*** |
| 자발적 단체 성원 존재무 | 70.38 | 153 | |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사교적 지원에 따라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밖의 역할활동이 中年期主婦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 주고, 각종 자발적 단체에 참여하는 主婦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장상희, 1988; Menaghan, 1982)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관심으로 맺어진 자발적 단체 성원과의 관계를 통하여 中年期主婦는 주부역할에서 생기는 권태감과 무가치감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中年期危機에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의 주요한 근원으로서 알려져 왔던 친척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자발적 단체 성원이 새로운 지원의 근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VI. 結論 및 論議

본 연구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관계측면에서 파악해보고,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이 危機感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主婦를 중심으로 가족과 社會關係網의 관련성을 파악해봄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원체계로서의 社會關係網支援의 중요성과 의미를 제시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의 범주를 시가친척, 친정친척, 출가시킨 자녀,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정서적·도구적·정보적·사교적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며 하위영역별로 볼 때 정서적·신체적·주부역할 危機感은 중간수준 정도이고 가족관계 危機感은 중간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는 보편적인 中年期 危機感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Brim, 1976; Neugarten, 1975)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녀의 학교교육과 대학입시 등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

으로써 中年期主婦 스스로 危機感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독립이후 더 큰 危機에 직면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

둘째,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출가시킨 자녀가 존재하는 유형에서는 출가시킨 자녀의 지원의 수준이 다른 범주의 지원보다 높았다. 모든 유형에서 시가친척의 지원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비친족집단인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 중에서는 친구의 지원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서 中年期主婦는 출가시킨 자녀와 친정친척, 친구로부터 社會關係網支援을 많이 받고 있고,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시가친척과의 관계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세째, 社會人口學的 變數에 따라서 볼 때 40대 초반이고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종교가 있는 경우에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았다. 이는 40대 초반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대학진학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主婦 자신의 危機感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기이고,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中年期主婦가 충고받을 수 있는 친구나 전문가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종교는 개인에게 안정과 위안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社會關係網 범주에 따른 지원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네째, 시가친척과 친정친척의 총지원이 많은 경우에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았다. 특히 시가친척의 정서적·도구적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때 부계친위주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강한 우리의 친족관계에서 시가친척은 中年期主婦의 생활에 관여하면서 이들의 危機感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친정친척은 中年期主婦와 정서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켜주는 지원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출가시킨 자녀의 총지원과 하위영역별

지원에 따라서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中年期主婦에게 있어 출가시킨 자녀가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 심리적인 부담감과 경제적인 압박감을 초래하고, 발달단계상 中年期主婦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 자녀세대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특성과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여 危機感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친구의 총지원이 많은 경우에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으며 특히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 많은 경우에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이 낮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中年期主婦와 동세대로서 中年期 危機感을 함께 겪고 있는 친구가 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社會關係網支援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웃의 지원은 사교적 지원 영역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데 이로써 이웃의 지원적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리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일곱째, 자발적 단체 성원의 총지원에 따라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서적·도구적·사교적 지원이 많은 경우에 危機感이 낮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주부역 할로부터 권태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中年期主婦에게 자발적 단체 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이 主婦의 자존감과 성취의식을 증진시켜준다는 측면에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中年期主婦에게 자발적 단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켜주는 社會關係網支援의 속성을 파악해본다는 입장에서 中年期主婦가 社會關係網支援을 제공받는 측면만을 보았다. 中年期主婦의 社會關係網支援과 危機感과의 관련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기 위해서는 中年期主婦가 社會關係網에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과 정도도 함께 파악하여 이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수준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자발적 단체 성원의 지원에 따른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의 차이를 밝혀보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자발적 단체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을 감소시키는데 의미가 있는지를 구명하지 못하였다.

세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社會關係網支援 척도와 中年期主婦의 危機感 척도는 선행연구를 참조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타당도가 보완되어야하며, 危機感이라는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면접법 등의 조사방법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中年期主婦의 심리적인 건강과 생활의 질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關係網支援의 근원과 그 내용을 구명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社會關係網支援에 따라서 中年期主婦의 危機感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社會關係網과 가족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参考文献

- 1) 강대기·홍동식(1982). 대도시 주거환경과 균린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16, 123-140.
- 2) 고선주(1990).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유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명자(1986). 중년기 부인의 심리적 위기감과의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대 논문집 27, 415-436.
- 5)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서봉연·유안지(1984).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7) 유가효(1984). 도시중류가족의 친족관계에 관한 일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 119-140.
- 8)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 111-129.

- 9)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10)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 이대한국문화연구원논총 44, 7-36.
- 11) 이원주(1988). 서울시 기혼남녀의 친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효재(1982). 도시인의 친족관계. 서울: 한국연구원.
- 13) 이효재(1987).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14) 장병옥·이정우(1986).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 15-31.
- 15) 장상희(1988). 도시 중년주부의 역할부재와 아노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61-89.
- 16) 최재석(1983). 아파트지역의 주민구성과 근린관계—서울 종류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문제 206: 37-51.
- 17) 한혜경(1985). 한국도시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홍완호(1978). 우울증빈도의 남녀대비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7(4), 411-422.
- 19) Arling, G.(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757-768.
- 20) Belsky, J., Rovine, M.(1984). Social network contact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455-462.
- 21) Bernard, J.(1982). The future fo marriage. New York: Yale Univ. Press.
- 22) Borland, D.C.(1978). Research of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Gerontologist* 18, 379-386.
- 23) Bott, E.(1971). Family and social network.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 24) Brim, O.G.(1976). Theories fo the mid-life cri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 2-9.
- 25) Brody, E.M.(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21, 245-264.
- 26) Cicirelli, W.G.(1982). Sibling influence throught the life-span. In Lamb M.E. Sutton smith B.(ed.). *Sibling Relationships: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ver the lifespan.* N. J Lawrence Erlbaum.
- 27) Ciernia, J.R.(1985). Death concerns of business-men's mid-life crisis. *Psychological Reports* 56, 83-87.
- 28) Cobb, E.(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29) Ell, K.(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iveview*, 133-139.
- 30) Erdwins, D.J., Mellinger, J.C · Tyer EE(1981). A comparison of different aspects of self concept for young, middle-aged older wo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484-490.
- 31) Farrell M.P, Resenberg S.D.(1982). Men at middle life. New York: John and Sons, 1981
- 32) Giele J.Z.: Women in adulthood: unanswered question. In Giele JZ(ed.)*Women in the middle years.* N.Y: Simon and Schuster.
- 33) Gould R.L.(1978). Transformations: growth and changes in adult life. N. Y: Simon and Schuster.
- 34) Gottlieb B.H.(ed.)(1981).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Prentice Hall.
- 35) Gove W.R., Tudor J.F.(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In *Changing woman and changing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6) Gross I.H., Crandal E.W., Knoo(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ew Jersey: Prentice Hall.
- 37) Hammer, M.(1981).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 and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7, 45-57.
- 38) Harkins, E.B.(1978). Effects of empty nest transformation on self-report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9-556.
- 39) Hayes, M.P.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669-674.
- 40) House, J.(1981). The nature of social support. In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 Addison Wesley.
- 41) House, J., Kahn, R.(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House J(ed.)*Social support and health.* N.Y: Academic Press.
- 42) Kahn, R.L., Abtomucci, T.C.(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In Baltes PB · Brim O(ed.)*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Boston: Lexington Press.

- 43) Kaplan, G.A., Robert, R.E., Camacho, T.C., Cooney, J.C.(1987). Psychological predictors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 206-220.
- 44) Lee, G., Ishii-Kuntz, N.(1987). Social interaction, lonel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9, 459-482.
- 45) Lennon, M.C.(1980). Psychological reaction to menoause : a sociologica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olumbia University.
- 46) Linn, M.W., Linn, B.S.(1984). Self evaluation of life function scale : a short comprehensive self-report of health for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9, 603-612.
- 47) Litwak, E., Szeleny, I.(1969). Primary group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 kin, neighbors and fri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465-481.
- 48) Lopata, H.Z.(1978). Contributions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s of metropolitan area widows : limitations of the modified kin net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 355-364.
- 49) Madelene, O.S.(1981). Religions and mid life crisis. *Religious Life Review* 20, 124-131.
- 50) Menaghan, E.(1983). Marital stress and family transitions : a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71-386.
- 51) Milardo, R.M.(ed.)(1988).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 52) Myers, J.K.(1975). Life events, social integration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6.
- 53) Neugarten, B.L.(1975). The awareness of middle age. In Neugarten BL(ed.)*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54) Notman, M.(1979). Middle concerns of women : implication of the menopa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 1270-1274.
- 55) Oppenheimer, V.(1975). The life cycle squeeze : the interaction of men's occupation and family life cycles. *Demography* 11 : 227-245.
- 56) Peplau, H.E.(1975). Midlife crisis.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5 : 1761-1765.
- 57)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 : 158-170.
- 58) Sheehy, G.(1976). Passage : predictable crisis of adult life. N.Y : Dutton. Targ DB. : Toward a reassessment fo women's experience of middle age. *Family Coordinator* 28 : 377-382.
- 59) Vega, W.A., Kolody, B., Valle, J.R.(1988).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tatus, confident support and depresion among Mexican immigrant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 597-560.
- 60) Wellman, B.(1985), Applying network analysis to the study of support. In Gottlib, B.H.(ed.)*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 1981 Wills, T.A. :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Social Support and Health*, Academic Press.